

제6강 빌렘 플루서의 미디어 이론 I

제6강 1교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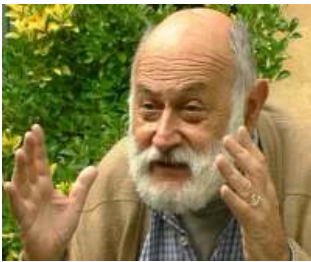
◆ 빌렘 플루서의 미디어 이론 ①

▲플라톤주의자들과 니체주의자들

빌렘 플루서의 디지털 가상은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에 대해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 많은 철학적인 이야기를 한다.

→기존의 철학의 존재론과 인간관이 변해간다는 것이 핵심적인 테제로 깔려 있다.

▶ 참고자료



빌렘 플루서 (Vilém Flusser)

1920년 체코 태생. 유대인으로 태어나 나치의 박해를 피해 브라질로 건너가서 독학, 상파울로 대학교 커뮤니케이션 철학 담당 교수가 된다. 1972년 브라질 군사 정권의 탄압에 프랑스로 망명, 마르세유와 악셀-프로방스 등 프랑스와 독일의 주요 대학에서 강의하면서 미디어와 테크놀러지에 의한 인간문화의 패러다임 교체를 필생의 과제로 연구하였다. 1991년 교통사고로 사망, 프라하 유대인 묘지에 카프카와 나란히 묻혔다.

지은 책으로 『사진의 철학을 위하여』, 『기술적 형상의 세계』, 『피상성 예찬: 뉴미디어 세계로의 상상력』, 『테크마르크 문화』, 『그림의 혁명』 등이 있다.

플라톤주의자는 항상 진리를 중심으로 사고하는 사람이다. 플라톤주의자들은 항상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가, 무엇이 현실이고 가상인가를 가려내려고 하는 반면 니체주의자들은 인식론적 존재론적 구별보다는 훨씬 더 미학적인 입장을 보여준다. **니체주의자들은 인식론적으로 가상을 폭로하기보다는 창조성을 높이 평가한다.**

→구원적 진리를 추구하는 수도승적인 멘털리티mentality는 플라톤으로부터 19세기 말, 20세기 전반까지의 철학 전통이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전통들은 그리스 시대에는 디오게네스, 최근에는 니체, 현대의 프랑스철학자들이 있다.

▲플라톤이 생각하는 가상의 두 가지 문제점

왜 사람들은 가상을 불신하는가? 그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대표적인 이론은 플라톤이 이미 내세웠다. 플라톤에 따르면 가상은 두 가지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

1) 첫째 **존재론적으로 가상은 열등한 것이다**. 플라톤에 따르면 참된 현실은 이데아의 세계에 있다. 이데아의 세계가 순도 100%라고 한다면 우리가 보는 현실은 그것의 불완전한 모방이다. 이 현실을 또 한번 모방한 것, 즉 거울에 비친 상이나 화가가 그린 그림 등은 모방의 모방, 복제의 복제, 소위 말하는 시물라크르이다.

2) 둘째 **가상은 인식론적으로는 거짓말이라는 것이다**. 참된 것을 참된 것으로 표상하는 것이 아니라 왜곡시켜 표상하는 것이 가상이라는 것이다.

⇒ 플라톤에 따르면 가상은 존재론적으로는 열등한 것이고 인식론적으로는 허위라는 것이다. 반면 니체는 진리보다 중요한 것이 예술이라고 본다.

▲현실과 가상의 차이

플루서는 '사람들은 가상이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불신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가상만 거짓말을 하는가?' 하고 묻는다. 플루서는 가상과 실재의 대립을 완화시키고 바로 이 구절을 통해 논문 전체의 기초를 암시하고 있다.

⇒ 지금 우리에게 문제는 디지털 가상과 아날로그적 현실 사이의 문제이다. 우리가 보는 현실도 플라톤에 따르면 어차피 가상이다. 그렇다면 **현실과 가상의 차이는 질적 차이가 아니라 양적 차이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유물론자인 데모크리토스도 우리가 눈으로 보는 현실이 가상이라고 이야기했다. 그에 따르면 실재는 원자의 배열이라는 것이다. 가령, 내 앞의 책상은 원자의 배열에 지나지 않는다. 실재는 원자의 배열이지만 우리의 감각세계에는 책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 현실은 절대적으로 참된 것인가 하고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대표적인 관념론자와 유물론자가 공히 우리가 눈으로 보는 현실은 가상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다.

▲다툼datum과 팩툼factum

datum(주어진 것, the given)

facts의 라틴어 어원은 factum(the made)이다.

플루서는 옛날 사람들에게 있어 세계는 주어진 것, 즉 '다툼datum'이었는데 인간이 세계를 변형시키면서 서서히 '팩툼factum'으로 변해왔다는 것이다. 아주 오래 전부터 인간은 환경을 변화시키면서 살아왔다. 세계를 주어진 상태로부터 만들어진 상태로 바꾸는 작업은 늦어도 청동기 시대 이래로 시작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사람들이 가진 제작에 대한 관념은 'datum'이었다. 즉 이미 있는 것을 자신들은 모방할 뿐이라고 생각했다.

예) **중세의 장인**. 중세의 장인들은 구두를 만들 때 자기들이 구두의 형태를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고 원래 구두의 이상적인 형태, 이데아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본 뜬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이상적인 구두는 욕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정신적인 형태를 보는 능력을 전통철학에서는 '**관조theoria**'라고 불렀다.

르네상스 이전까지만 해도 장인들은 자신들이 물건을 만들면서도 자신들의 천상의 영원한 원상을 모방한다고 믿었다. 그 원상을 '관조'(theoria)하는 정신적 활동은 온전히 성직자들의 몫이었고, 장인들은 성직자의 명에 따라 이 원형을 물질적 재료로 실현하는 노동(praxis)을 담당했다.

그러나 르네상스 이후 장인들이 시장을 위한 생산을 하면서 이 관념은 서서히 바뀌기 시작한다. 과거에는 성직자들이 천상의 원상과 얼마나 일치하느냐에 따라 장인이 만든 물건에 값을 매겼다. 하지만 시장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다.

⇒ 장인들은 이제 주문자인 성직자의 요구가 아니라 시장의 익명의 소비자들의 요구에 따라 생산을 하게 된다. 그 결과 자기가 만든 물건의 형태가 천상의 원형을 베낀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라 믿게 된다.

중세의 장인들은 물건을 만들 때 성직자들의 견해를 참조했다. 값진 공예품의 주문자는 주로 교회였으니 당연한 일이다. 그때 공예품의 형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성직자들이었다. 하지만 **르네상스 이후에 장인들은 시장을 위한 생산을 하게 된다.**

⇒ 시장 소비자들은 미리 형을 주문하지 않고, 이미 완성된 형을 사후적으로 '선택'한다. 이때부터 장인들은 제품의 형을 결정하는 것은 자신이라는 의식을 갖게 된다. 중세 장인이 현대적 의미의 디자이너가 된 것이다

이렇게 하여 인간이 만든 생산물은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것이 되었다. 즉 이미 있는 것의 '모상'(Abbild)이 아니라, 아직 없는 것의 '설계'(Entwurf)가 되었다. 이렇게 아직 없는 것의 형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우리는 흔히 '**디자인**'이라 부른다. 이때부터 성직자가 담당하던 '관조'(theoria)는 그 신학적 성격을 잃고, 대학, 공방, 연구소라는 세속적인 공간으로 옮겨져 오늘날의 '**이론**'(Theorie)이 된다.

⇒ 인간은 지금까지 모든 것을 datum에서 factum으로 바꾸어왔고 이제는 자기 자신까지도 datum이 아닌 factum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 즉 존재의 디자인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미 인간은 생명을 디자인하기 시작했다.

▲모상과 모형

모상은 원본을 본 뜨는 것이다. 하지만 **모형**은 원본이 없다.

예) 청계천에 대한 모상과 모형. 천변풍경을 담은 그림이나 사진은 이미 존재하는 것의 모상이지만 설계도는 아직은 없는 것의 모형이다.

근대의 인식론은 주체의 바깥에 객관적 세계가 있고 주체는 그것을 반영한다. 즉 모상을 뜨는 것이다. 하지만 칸트의 '**구성주의**'는 시간과 공간을 존재의 형식이 아니라 주관의 형식으로 보는데 이것은 모형적인 관념에 가깝다.

⇒ 모상은 실재와 일치할 것을 요구한다. 모형은 반대로 'practical'한 것이고 모형에 맞지 않는 사례들이 늘어나면 결국 모형 자체를 바꾸게 된다.

제6강 2교시

◆ 빌렘 플루서의 미디어 이론 ②

▲이미지의 주술적 역할

흔히 '**실존**'이라 번역되는 'existence'라는 말은 ek + sistens, 즉 '바깥에 존재한다'는 뜻이다. 한마디로 인간은 자연상태의 바깥으로 나옴으로써 비로소 인간으로서 실존하게 되었다는 얘기다.

인간도 한때는 동물처럼 대자연의 품에서 그 일부로 살아갔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인간은 자연에서 분리되어 자신을 자연과 다른 존재로 의식하게 된다. 이 과정은 여러 신화 속에 '낙원추방'의 설화로 반영되어 있다.

인간이 자연의 품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자연을 적대적인 힘으로 의식하게 되었을 때 인간과 세계의 관계는 매우 낮설었다.→**소외상태**

카시러에 따르면 세계와 인간 사이를 매개해주는 것은 **상징형식**이다. 인간이 세계 속에서 갖는 의미, 인간과 세계의 관계를 설명하는 틀이 존재해야 인간이 세계와 화해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예술, 종교, 철학**이 상징형식이다.

→**인간이 세계를 표상하는 방식이 상징형식**이다.

⇒ 이 소외상태를 메워준 것이 바로 **이미지**였다. 원시인들은 뮐렌도르프의 비너스와 같은 조각을 만들거나, 라스코나 알타미라 동굴의 벽에 그림을 그림으로써 자신과 세계 사이의 간극을 메웠다. 다시 말해 '**주술**'을 통해 세계의 적대성을 극복하고, 세계와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이다.

▶ 참고자료



뮐렌도르프의 비너스



알타미라 동굴 벽화

과학이나 기술이 없었던 시절, '주술'은 세계를 정복하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그 시대에는 조각이나 그림과 같은 가상의 이미지를 조작함으로써 현실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믿었다. 물론 주술로 자연을 부릴 수는 없는 일이다. 그렇다고 주술이 아무 쓸모도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적어도 주술은 자연의 위력 앞에서 느끼는 공포감을 덜어주어, 삶을 사는 데에 필요한 심리적 안정감을 주었기 때문이다.

⇒ **실질적으로 현실에 개입할 능력이 없었을 때에는 이렇게 주술을 통해 상징적으로 개입을 했던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술은 근거가 없는 것인데 어느 순간 사람들은 이를 깨닫게 되었다. 가상과 실재를 구별하는 분별력을 갖게 된 시점에서는 사람들은 더 이상 이미지가 가진 주술성을 믿지 않게 되고 결국 세계와 인간의 관계는 또 다시 멀어지게 된다.

▲문자의 발명과 역사시대의 시작

지력(知力)이 발달하면서 인간들은 점차 주술의 효용성에 의문을 갖게 된다. 이로써 한때 그림이 매개했던 세계와 인간의 관계는 다시 낮설어진다. 이 새로운 낮섬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바로 이때 '문자'가 발명된다.

⇒ 문자와 더불어 이른바 '**역사**'라는 것이 시작된다. 역사시대가 시작되면서 원시인의 주술적 사유는 점차 사라져간다. 그리고 그 대신에 합리적, 철학적 사유가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원시인들은 세계의 그림을 그리고, 그 이미지에 조작을 가함으로써 결과를 현실로 연장하려 했다. 역사시대로 들어오면 상황이 달라진다. 이제 인간은 세계를 문자로 기록한다. **세계와의 만남에서 얻은 정보를 기록함에 따라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식은 누적적으로 발전한다.** 사람들은 문자로 씌어진 자연의 비밀이 자연을 정복할 수 있게 해주리라 믿었다.

▲자연의 수학화

하지만 이 목표를 이루려면 자연은 문자가 아니라 숫자로 기술되어야 했다. **미적분의 발명은 자연을 남김없이 수학화하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 미분과 적분은 수의 불연속성을 연속성으로 바꾸어주기 때문이다. 라이프니츠와 뉴턴이 미분과 적분을 만듦으로써 자연의 연속량이 수로 번역이 가능해진 것이다.

→오늘날 자연의 모든 현상은 방정식으로 표현되고, 자연은 '거대한 수학책'으로 여겨진다. 지난 몇 세기 동안 자연의 수학화가 지구의 모습을 바꿔놓는 데 결정적인 구실을 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아날로그의 세계는 모든 것이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문자나 숫자의 세계는 연속적이지 않고 분절되어 있다. 한국말이 10만개 정도라고 해서 세계의 사물들이 10만개밖에 없는 것이 아닌 것이다.

⇒ 자연의 연속성과 숫자와 알파벳이 가진 비연속성 사이의 모순을 극복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데카르트가 원자론을 부정한 이유

그런데 데카르트는 왜 원자론을 부정했을까? **모든 것은 나누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사유실체와 연장실체, 즉 정신과 사물의 질적 차이를 구별하기 위해서이다. 데카르트에 따르면 정신은 영원불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육체는 그 본성상 항상 분해될 수 있고, 정신은 완전히 분해될 수 없다.'

→즉 육체는 분해될 수 있기에 유한하고, 정신(=영혼)은 분해될 수 없기에 육체의 죽음 뒤에도 불멸한다는 것이다.

데카르트에 따르면 **자연은 완전한 연속량**이라는 것이다. 반면 사유는 문자와 숫자로 이루어진다. 명석, 판명한 것은 다른 것과 명확히 구분이 되는 불연속적인 것이다. 이상적인 정신의 질서는 discontinuity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연의 연속량과 사유의 불연속성이 충돌하게 된다.

자연을 수학으로 번역한다는 것의 의미는 자연을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으며 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근대의 과학자들은 자연을 수학화하려 했다. 17세기 미분과 적분이 발견되면서 자연을 남김 없이 수학화할 가능성이 열렸지만, 이것은 아직 순수한 이론적 가능성에 불과했다. 비교적 간단한 탄도의 계산도 책 몇 권 분량, 때로는 일생을 다 바쳐야 할 연산의 양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자연의 수학화는 컴퓨터가 등장하여 기계적 연산이 가능해지면서 비로소 실천적 가능성으로 변모한다. 이로써 세계를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것'으로 변모시킬 준비가 갖추어진다.

▲문자적 사고와 숫자적 사고

1) 문자코드, 알파벳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선형적, 역사적, 인과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즉 **시간적인 연속성을 전제로** 한 사고인 것이다. 흔히 말하는 진보, 보수의 개념도 이에 해당한다.

2) 숫자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형을 만들고 사고**한다. 그래서 **체계적, 구조적, 형식적**이다.